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5차 국민행동의 날>

“김건희를 특검하라” 광화문에서 다시 울려 퍼진 국민의 함성

민주, ‘김건희 특검 관철’과 ‘윤석열 무능 심판’ 다짐

당원과 국민이 함께한 촛불행진, 광화문에서 명동까지 서울 도심 가득 채워

- 11월 마지막 주말도 광화문은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거부한다!” 라는 국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기습적인 한파와 굶은 비도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5차 국민행동의 날>의 뜨거운 열기를 막지 못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원과 국민 앞에서 ‘김건희 특검 관철, 윤석열 무능 심판’을 다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심판하라!’를 강조하며 검찰의 야당탄압, 정적 죽이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낼 것을 약속하며 “특검관철, 사법정의, 정권심판,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어진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에 합류해 당원, 국민과 함께 한목소리를 냈다. 핫팩과 촛불을 손에 쥔 수 많은 당원과 국민은 “윤석열을 거부한다!” “김건희·채상병 특검하라!”를 외쳤고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목소리에 동참하며 시민행진의 열기를 더욱 돋구었다.
- 특히 대회 종료 직후 이어진 당원과 국민이 만들어낸 촛불 행진은 장관이었다. 굶은 날씨도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을 막지 못했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촛불 행진은 조계사-종각역-을지로를 지나 명동까지 이어지며 차가운 서울 도심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웠다.

- 현재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서명운동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0일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해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로 김건희 특검 관철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함께 투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2024.11.30.(토)

더불어
민주당